



광주 환경영화 감독 초청 시민특강 성료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지난 24일 조선대학교 대호전 기홀에서 기후위기대응 2차 시민특강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 살아갈 우리'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강연은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관객심사단상 수상작인 '광천동 김환경'의 박동희 감독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영화 '광천동 김환경'은 1970년 광천동에 건설된 광주시 최초의 아파트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다.

박 감독은 5·18 당시 들불야학의 시작점이었던 광천시민아파트가 재개발로 사라지게 되면서, 그 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박 감독은 "기후변화에 의해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시민의 공동 참여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키즈리본' 캠페인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키즈리본'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키즈리본'은 소아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래 목표를 담은 캠페인이다.

광주전남지역암센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과 연계해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청소년들을 초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암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국민 암예방수칙 안내 △암 예방 습관 동화 '튼튼별 대소동' 구연 △건강 습관 다짐복 만들기 체험 △암 예방 3컷 사진 찍기 △국민암예방수칙 포스터 우수작 디지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노병하 기자



광주 광산소방, 지하철 역사 합동소방훈련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 24일 광산구 도산역 지하철 역사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날 훈련은 지하철 역사 내 가상의 화재 상황을 설정해 관계인의 초기 대응과 소방대원의 화재진압훈련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관계인 초기진압·대

피유도 △소방시설 활용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배연작업 △지하철 역사 내부 구조 점검 등이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지하철 역사는 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서구, 정신건강·자살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광주 서구는 지난 24일 '정신건강·자살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 8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협의체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찰 및 소방, 정신건강 전문기관, 복지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협의체는 정신건강·자살 위기대응체계 역할을 분담하고 정신질환자와 자살위험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신과적 응급상황 신고, 현장대응, 이송 등 단계별 안전 보장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늘어나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체 위원들은 서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의에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광주 서부소방, 전기차량 화재진압 훈련

광주 서부소방서는 지난 24일 광천모아엘가에서 소방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기차 대응훈련은 서부소방서 모든 화재진압대원이 참여,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현장대응단 소방훈련팀이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이론 교육과 대응장비 시연회, 전기차량 화재진압숙달 훈련, 지하주차장 등 화재 시 연소확대 차단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화재 발생 시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쉽게 꺼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 이동식 소화소, 질식소화 등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교통공사-광주지발협, '대·자·보 도시' 정책 포럼

광주교통공사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서구 마북동 본사에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전환을 위한 사람 중심 도시 광주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정책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을 포함한 녹색교통 이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자전거 및 보행 정책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숲과나무 자전거시민포럼,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자보도시 전환을 위해 광주가 나아가

방향과 과제 △국내외 도로 다이어트 사례 공유와 제안 등의 주제 발표 이후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여기관들은 '녹색교통 자전거·보행 친화도시 1010' 업무협약을 맺고,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한 기후위기 공동대응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관계기관과 시민이 한데 모여 광주의 미래 교통비전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자보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남부소방, '조난신호 이해·대응전략' 강연

광주 남부소방서는 25일 대회의실에서 직장교육훈련 전문강사 초빙 '조난신호의 이해와 대응전략' 특별 강연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진)

특별 강연은 모든 통신 두절 상태에서 조난신호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대형재난, 전시 또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난 상황을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제 및 국가적 기준에 따른 조난신호의 분류와 의미 및 중요성 △대형재난 상황에서의 조난신호 대응 전략 및 모스부호 사용방법(빛, 소리, 무선통신) 등이다.

박찬 기자



광주 광산경찰,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

광주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는 미아 방지 예방과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다운어린이집을 방문해 3세~6세 원생 30명을 대상으로 '미아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지문사전등록제도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자폐·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을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미리 입력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빠른 시간 내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제도다.

광산경찰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지난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실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어린이와 치매 노인 보호 등 실종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김상철 기자

'가왕' 조용필, 11년 만 정규앨범... 10월22일 발매

가수 조용필(사진)이 11년 만에 정규 음반으로 돌아왔다.

25일 조용필은 소속사 YPC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22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새로운 정규앨범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조용필은 "오랜 시간 준비해 온 20집은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음악을 통해 여러분과 더욱 깊이 교감하고, 함께 감동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조용필의 정규 음반은 지난 2013년 정규 19집 '헬로(Hello)' 이후 11년만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과 지난해 4월에는 각각 정규 20집 리드 싱글 '로드 투 트웬티(20)-프렐류드' 1·2를 발매하기도 했다.

그는 두 싱글을 통해 여전히 젊은 감각을 증명했으며 데뷔 55주년을 맞은



지난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 등에서 '2023 조용필&위대한탄생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했다.

특히 조용필은 칠순이 넘는 나이에도 평소 운동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조용필은 자신의 히트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제작도 추진 중이다.

한편,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한 조용필은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르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1980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가왕' 자리에 올랐다.

곽지혜 기자